2강 욕망하는 기계

(1교시)

◆ 기계의 시대

※ 학습목표
신체의 기계와 코드의 잉여가치를 통해 기계의 시대를 이해한다.

▲ 신체의 기계
반대로 '유기체 역시 정교한 기계이다' 라는 기계론적 주장을 밀고 나가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는 크고 작은 부분 기관들이 연결되면서 작동하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동력기계가 전동기계와 연결되고 전동기가 작업기계와 연결되어 인간의 손과 팔-기계에 의해 옮겨진 철판을 깎거나 자름으로써 선반기계가 되는 것처럼 유기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역시 개체의 경계를 넘어 다른 기계들의 기관들과 연결되어 매순간 다른 기계들을 형성합니다. 가령 손이라는 기관은 선반기계의 부분과 연결되어 선반 기계의 기관으이 되기도 하지만 컴퓨터 자판과 연결되어 글쓰기 기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총과 연결되어 전쟁기계의 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 기계론이 상정한 구조적 통일성이나 결정론적 필연성 따위는 붕괴되고 맙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과의 시작과 끝인지,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전체 구조의 요소들인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틀러는 생기론과 기계론을 각기 극단으로 밀고 나가 "유기체에 특유한 개체적 통일을 의문시하여 생기론의 주장을 폭파하고, 또 기계의 구조적 통일을 의문시하여 기계론의 주장을 폭파"(420)합니다.

▲ 생식시스템과 코드의 잉여가치
유기체와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자 유기체의 본질인 '성' 혹은 '생식' 역시 의문에 부쳐집니다. 종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기계의 진화는 기계 역시 생식 시스템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생물의 생식 시스템이 환경을 매개로 이루어지듯이 기계의 생식 시스템은 인간을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기계의 생식에 환경으로서 기능합니다. 오늘날 컴퓨터는 인간의 사회적 생산 시스템을 자신의 생식 시스템으로 사용합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멸종시킬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최소한 현재의 사회적 생산 시스템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체의 생식 시스템은 동물과 식물,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꿀벌 수컷이 붉은 클로버의 수분(受粉)을 매개할 때 꿀벌 수컷은 붉은 클로버의 생식 시스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 수컷의 영양 섭취 시스템이 붉은 클로버의 생식 시스템으로 코드전환(trans-code)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체의 자기 복제 능력, 즉 생식능력을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당나귀와 말의 잡종인 노새는 자손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라고 해야 하며, 좀 심하게 말해서 생식 능력을 상실한 남자와 여자 역시 생명체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거꾸로 DNA 분자는 복제능력이 있으므로 생명체라고 불러야 하며, 유전자와 단백질은 없지만 다른 생명체를 매개로 자신을 복제하는 바이러스는 복제능력이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함께 엄연한 생명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문제 아닌 문제는 유기체(organism)를 '나눌 수 없는 단일체', 즉 개체(individual)로

www.artnstudy.com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공동체이다”(『생명이란 무엇인가』, 194) 우리 몸은 분리될 수 있는 무수한 진핵세포들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몸은 박테리아 세포들의 서식지(환경)입니다. 박테리아는 우리 몸 속의 소화 시스템이나 인간 사회의 전염병 시스템을 자신의 생식 시스템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재생산합니다. 어떤 박테리아는 숙주(환경)를 바꿔가며 번식하기 위해 달팽이를 바위 위로 올라가도록 만듭니다.[1] 그러면 하늘을 떠돌던 갈매기가 그 달팽이를 먹고 박테리아는 성공적으로 생식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달팽이의 질병과 갈매기의 먹이사냥을 자신의 생식 시스템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좀더 큰 단위의 생물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코드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해머난초(hammer orchid) 중 어떤 것은 자신의 꽃잎으로 말벌 암컷의 모양과 색을 흉내냅니다. 수컷 말벌이 암컷인 줄 알고 꽃잎을 덥석 잡을 때 해머를 이용해 수분을 하는 거죠. 말벌의 생식 시스템을 자신의 생식 시스템 속에 끌어들이는 거죠. 어떤 반복된 흐름을 만드는 연쇄를 코드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은 말벌의 생식 코드와 난초의 생식 코드가 연결되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코드가 결합할 때는 이처럼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해머난초의 꽃잎이 암컷 말벌의 형상을 닮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앞에 든 예에서 박테리아의 생식 코드가 갈매기의 먹이 사냥 코드와 결합될 때(혹은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 달팽이가 자신의 평상시 습속을 버리고 미친 것처럼 마른 바위 위로 기어올라가는 현상도 이와 같은 부수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코드가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수효과를 “코드의 잉여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각 연쇄는 다른 연쇄들의 단편들을 포획하여 그로부터 잉여 가치를 ‘뽑아 낸다.’ 오르키드 난초 코드가 말벌의 형상을 ‘끌어내듯이’. 이런 현상은 코드의 잉여가치를 보여준다.”(65) 우리는 박테리아의 생식 코드로부터 전염병이나 방귀 같은 불쾌한 잉여가치도 얻지만 발효된장이나 요구르트, 하수 정화, 토양의 비옥함 같은 유쾌한 잉여가치도 얻는 셈입니다.

▲ 기계의 시대

이렇게 생기론을 극단으로 밀고 나갈 때 기계론의 극단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지점에서 유기체의 개체적 통일성과 기계의 구조적 통일성은 붕괴됩니다. 유기체는 외부와 연속적으로 열려 있는 부분 기관들의 집합체이며, 기계 역시 외부의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기관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부분 기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기술기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군대조직이나 관료체제 같은 사회기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유기체 기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체제와 작동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본성상 같은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유기체와 사회까지 기계로 일반화되어야 할까요? 반대로 기계나 사회를 유기체로 보거나, 기계와 유기체를 사회로 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기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표상의 질서를 대체한 생산의 체제와 기계 사이의 친연성 때문입니다. 19세기는 생산의 시대이며, 그런 만큼 기계의 시대입니다. 19세기의 기계는 고전주의 시대의 데카르트적 기계와 다릅니다. 17세기의 기계는 표상의 질서를 이루는 연장된 존재(res extensa)이지만 19세기의 기계는 생산과정의 구성 요소로서 ‘작동하는 존재'입니다. 17세기의 기계론은 일반수학의 분석원리이지만 19세기의 기계론은 기술공학technology의 종합원리입니다. 또한 17세기 기계론의 기호는 형태, 수, 위치, 비율 같은 수학적 기호이지만 19세기 기계론의

1)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효형출판, 2001, 134쪽.

www.artnstudy.com

기호는 “운동을 담지자로부터 떼어내고, 그것 자체로서 직접 시각화하는”[2] 도상입니다.

▲ 기술기계

프랭크 B. 길브레드는 마레의 운동궤적 실험을 작업장에 도입하여 노동자가 가장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의 궤적을 공간상에 표시하는 다이어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추상기계 위에 표시된 인간의 동작에서 유기체의 피와 살과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직 생산의 기능단위로 환원된 인간, 기계의 작동과 구별되지 않는 동작입니다. 그 동작은 연속한 생산과정의 흐름-선(assembly-line)의 일부를 이룹니다. 기계제 대공업은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추상기계와 아담 스미스의 분업 체계가 결합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1783년 올리버 에반스는 밀을 원활하고 연속적으로 이동시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밀가루를 만드는 연속 라인을 발명했습니다.

여기서 연속 라인의 마디 마디가 기계로 이뤄졌는지 사람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만 이뤄진 어셈블리 라인에서조차도 사람은 연속된 생산라인의 기관적 지절(支節)이지 개체적 통일성을 갖춘 유기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기계란 이렇게 부분화된 기관들이 연속된 흐름을 만드는 생산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사고하는 존재와 구분된 연장된 실체라는 의미도 없고 유기체와는 다른 딱딱한 금속성의 느낌도 없습니다. 오직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절단하는 부분-기관들의 연결이 있을 뿐입니다. 19세기의 기계는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절단하는 부분 기관들의 연결체로 정의됩니다. (17세기는 하나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수학적인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기계의 역할이었다면, 19세기는 흐름을 만들며, 작동하고 연속적인 흐름의 생산이 기계의 역할이었습니다.)

▲ 유기체 기계

유기체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절단하는 부분 기관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양분, 산소와 이산화탄소, 전기신호, 부산물, 호르몬의 흐름을 만들고 절단하는 기관들이 연결된 기계이자 공장입니다. 먼저, 입은 음식물의 흐름을 절단하여 몸 속으로 흘러 보내는 작은 기계입니다. 그것은 엄마의 젖가슴과 연결되어 엄마 젖가슴의 유선조직으로부터 젖의 흐름을 절단하여 자기 몸 속으로 흘러보낼 수도 있고 이마트에 흘러들어온 분유의 흐름을 절단하여 몸 속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입-식도-십이지장-소장-간) 다음, 호흡계의 출발점에서 코는 대기 중의 공기의 흐름을 절단하여 적당한 수분과 온도 조절을 거쳐 몸 속으로 보냅니다. (기도-기관지-폐포-모세혈관-순환계)

신경계는 피부말단이나 손끝, 눈, 코, 귀 등의 감각신경에서 시작합니다. 코의 화학적 자극과 눈, 귀, 말초신경의 물리적 자극은 여기서 전기신호로 바뀌어 신경을 타고 척추신경을 경유, 어떤 신호는 곧장 운동신경으로, 어떤 신호는 뇌로 전해집니다. (뉴런의 신호전달과 투여/공명)

마지막으로 내분비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여러 호르몬을 자극하는 명령 호르몬의 흐름에서 시작합니다. 이 명령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성 호르몬 같은 각종 호르몬의 생산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호르몬이란 일종의 화학물질인데, 프로이트 역시 성감의 형성과 발달에 모종의 화학물질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2) S. 기디언, 이건호 역, 『기계문화의 발달사』, 지식산업사, 21쪽.

www.artnstudy.com

▲ 분자운동

최근 들어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은 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고분자 화학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은 음식물의 흐름이나 공기의 흐름을 타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 엉뚱하게도 에스트로젠 행세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호르몬의 화학 작용이 리간드(작용기)의 분자공학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세포에 가서 화학작용을 하는 것은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랑 호르몬의 리간드가 마치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는 것처럼 꼭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이옥신이라는 고분자물질은 에스트로젠과는 화학적으로 아무 공통점이 없지만 에스테로젠의 리간드와 모양이 비슷해서 세포막의 리셉터에 '딸깍!' 맞아 들어가 '허걱!' 에스트로젠의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들은 "집합의 법칙들에 비추어 보면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그렇고, 역능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425)

※참고자료

추상기계의 발명들

1860년대 무렵에 마레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재현할 목적으로, 실린더 위에 인간의 박동을 표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사물의 운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계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표현욕구가 굉장히 높았던 때입니다. 1880년대 초기에는 사진이 나왔고, 새가 비상하는 운동궤적을 손으로 표현하거나, 인간이 걸어갈 때의 궤적을 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파 예술에서 잘 보여 집니다.

같은 시기 신경생리학자들도 근육이나 신경내의 장치를 발견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17세기처럼 형태나 수와 같은 수학적 추상이 아니라 사물의 움직임과 흐름을 사물로부터 떼어내서 사물이라는 영토로부터 탈영토화 시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추상기계의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다이어그램 추상기계는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궤적을 그대로 표현하는 도표입니다. 이것은 표상의 분류가 아니라 생산의 기술공학에 사용되었습니다. 인간 동작의 궤적을 생산의 기술공학에 접목시킨 사람이 테일러입니다. 작업 과정을 스톱워치로 분할하고 시간으로 추상화시켜 가장 빠른 운동의 궤적을 사무 관리법으로 체계화 한 것이 이 사람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른 사람이 길브레드입니다.

www.artnstudy.com

2강 욕망하는 기계

(2교시)

◆ 사회기계와 기계의 기계

※ 학습목표
사회기계와 기계의 기계를 이해한다

▲ 분자운동의 특성
“화학적 친화력이 없는 물질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그리하여 화학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화합물들을 개입시켜 어떠한 반응이든지 마음대로 제어하게 되는” 이런 “분자공학”은 비단 환경호르몬의 경우뿐만 아니라 효소작용 일반, 유전코드의 탈코드화 과정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효소의 작용을 통한 단백질 생산, 유전코드의 탈코드화 등 유기체의 물질대사와 재생산 과정은 통계적으로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자의 차원에서는 이처럼 우연과 변이가 가득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이 우연과 변이를 “분자운동”의 특성에서 찾습니다. 1827년 영국의 식물학자 R. 브라운이 물에 떠 있는 꽃가루의 입자가 수면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현상을 발견한데서 유래한 이 ‘브라운 운동’은 분자들이 충돌할 때 일으키는 불규칙한 방향과 속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질의 입자는 이렇게 일정한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최소 입자(원자)를 이렇게 운동(흐름)으로 파악한 사람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를 소개한 고대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원자의 운동을 비스듬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충돌로 설명합니다. 직선적 낙하의 방향에서 빗겨나는 “가로지름clinamen이 충돌의 원인”[3]입니다. 분자운동은 이 클리나멘으로 인한 충돌과 벡터(vector)만을 갖지 일정한 화학적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물분자의 운동은 ‘물’의 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물의 화학적 속성은 분자들이 일정한 수(아보가드로 수 6.02×10^{23})의 단위로 합산될 때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같은 입자들의 화학적 단위를 ‘몰’(mole)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분자운동의 차원에서는 특정한 화학적 속성이나 생물학적 기능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분자운동은 미소물리학(microphysics)의 힘과 방향(속도)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몰 단위에서의 운동은 특정한 속성에 입각하여 예측 가능한 방향을 가지며 특정한 결합 규칙에 따릅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자신의 유물론을 이와 같은 분자운동과 몰적 집합의 상대적 규정 속에서 전개합니다.

▲ 사회기계
이런 기술기계들과 유기체기계는 사회기계에서의 흐름과 절단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인간의 유기체 기계는 자동차의 기술기계와 결합하여 교통의 흐름 속으로 빨려들어 갑니다. 신호등 기계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의 흐름을 끊습니다. 신호등 기계 속에는 교통행정 체계라는 사회기계의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은 또한 보행자의 흐름을 절단하면서 자동차의 흐름과 분리시킵니다. 추상의 수

3) 질 들뢰즈,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루크레티우스와 시뮬라크르」, 한길사, 1999, 427쪽.

www.artnstud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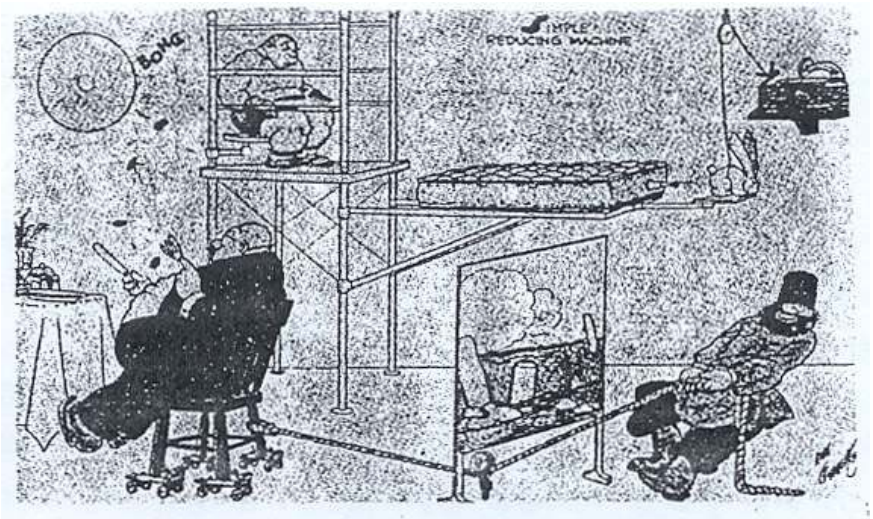
준을 조금 높여서 잘 안 보이는 예를 들면, 사람의 흐름은 생산수단이라는 기술기계와 화폐라는 기호기계의 흐름에 의해 서로 다른 계급으로 절단됩니다. 또 자본의 흐름은 다이옥신이라는 분자의 흐름을 유기체의 성호르몬과 융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성호르몬의 '비정상적'(?) 흐름은 성적 차이의 흐름을 절단하며, 이 성차의 흐름은 국가기계에 의해 인구의 흐름으로 절단됩니다. 이처럼 유기체 기계와 기술기계와 사회기계는 총체적으로 연결된 무수한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절단하는 부분 기관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계로서의 현실 자체입니다.

▲ 기계의 기계

현실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과 기계의 구별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관은 기계의 부분이기 전에 이미 다른 기계와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계는 기관으로 구성된 전체이기 전에 이미 다른 기계들과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은 유기체-기계의 기관인 동시에 핸들과 연결되어 자동차-기계를 이룹니다. 어떤 기계도 개체적 통일성이나 구조적 통일성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는 모든 다른 '기계(기관)들의 기계(기관)'로서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문-기계와 장-기계, 장-기계와 위-기계, 위-기계와 입-기계, 입-기계와 가축의 떼(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의 관계가 성립"(62)합니다. "모든 기계가 기계의 기계이기 때문"(61)입니다.

▲ 단순한 살 빼는 기계

저자들은 기계들의 횡적 연쇄를 설명하기 위해 루브 골드버그의 「단순한 살빼는 기계」라는 재미있는 그림을 예시합니다.



Rube Goldberg — Simple Reducing Machine.

이 기계는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볼가강의 뱃사공에 의해 시작됩니다. 밧줄을 잡아 당겨야 기계가 작동합니다. 아주 심플한 기계입니다. 인간, 그림, 토끼, 기계, 음식물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기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분기계들이 연쇄되어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끝나지도 않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발점과 끝점이 동시적이

www.artnstudy.com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결되는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심플한 기계는 백만장자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실제 기계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을 빼지 못한다면 그의 의지박약 때문이 아니라 뱃사공이 밧줄을 잡아당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동시성 때문에 기계는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 '그것'은 기계다

프로이트는 욕망의 표상들 밑에서 표상을 생산하는 욕망 자체의 생산법칙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리비도를 양적인 것으로 추상화시켰고 외부 세계의 객관적 표상과 독립해서 리비도의 흐름이 주체가 되는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탐구 대상으로 놓았습니다. 이 무의식적 욕망은 의식의 주체, 즉 표상의 주체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생산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생각의 작인, 즉 에고(자아)와 무관하게, 에고를 배신하면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의 작인을 그는 '그것'(das Es)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텍(Groddeck)을 경유하여 이 단어의 니체적 용법[4]을 그대로 따르면서 프로이트는 "우리의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삶 속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움직인다...우리는 제어할 수 없는 미지의 어떤 힘에 의해 살아진다"[5]라고 씁니다. 히스테리나 정신병 환자들이 자주 "그것이 나보다 더 강해요" "그것이 나를 엄습했어요"라며 자아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힘을 비인칭 사물 대명사로 호명하는 것에서 '그것'의 니체적 용법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리비도의 기계적 원리

프로이트는 그 욕망의 생산이 기계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그는 리비도의 양적 생산과 흐름의 원리를 "생물학적 원리"와 대비하여 "기계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적 심리학 초고」, 250) 생물학적 원리가 외부자극의 제한과 내적 자극의 저장이라는 개체 보존의 합목적성을 갖는 것과 달리, 리비도의 기계적 원리는 양적 투여, 이동, 방출의 미시물리적 원리를 따릅니다. 이 기계적 원리는 개체 보존의 합목적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그는 이 기계적 원리를 "죽음충동"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기계는 유기체의 보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계적 원리는 "묶이지" 않은 자유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무의식 조직의 "1차 과정"으로 불립니다. 『꿈의 해석』에서 그는 꿈 속의 표상이 의식적 표상의 논리와는 무관하게 생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의식적 표상의 연쇄를 지배하는 것이 리비도의 기계적 원리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리비도는 의식적 표상의 중요성이나 질적 특징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원리에 따라 표상을 이동시키고 교차시킵니다. 자아에 의해 '구속'되지 않은 이드의 리비도는 이처럼 "대상에 관한 특유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리비도의 기계적 생산은 인격(personality)도 모르고 표상의 사회적 가치도 모릅니다.
그것은 "물리적 사건"에 직접 결부된 "자동적" 운동 원리만을 따릅니다.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리비도의 이 자동적 운동을 외상신경증에서 발견합니다. 외상신경증이란 전쟁이나 철도사고 같은 심각한 "기계적 충격"으로 인해 자아(개체)를 보호해주는 "막피(膜皮)"가 손상되어 외부의 자극이 곧장 유기체 내부로 침범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로 인

4) 프리드리히 니체, 김훈 역, 『선악을 넘어서』, 청하, 1992, 40쪽. "생각은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원해서 나온다. 따라서 <나>라는 주어가 <생각한다>라는 서술어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 된다. 그 무엇이 생각한다(Es denkt)"
5)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자아와 이드」, 열린책들, 1997, 109쪽.

www.artnstudy.com

해 외상신경증환자는 유기체 내부의 리비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항상성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상신경증환자는 최초 외상적 사건의 강렬도(intensity)를 '묶지 못하고', 즉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출함으로써 그때의 고통을 반복합니다. 프로이트는 외상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반복강박"을 "기계적 폭력"(「쾌락원칙을 넘어서」, 43)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비도의 기계적 원리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폭력과 죽음으로 표상됩니다.

▲ 절약과 항상성

앞서 리비도의 양적인 생산을 '리비도 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리비도의 질적 측면과 물리적 자동 생산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리비도의 기계학'이라는 용어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가 이런 기계적 생산 원리를 정식화하지 않고 그것을 '경제학' 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경제학에 대한 그의 이해방식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경제학의 원리는 '절약'(economy)입니다. 프로이트에게 쾌락의 원리가 경제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심리적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곧 쾌락의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그는 쾌락을 "심리적 비용의 절약"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적 농담'에서 '웃음'의 효과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억압된 표상을 떠올릴 때 드는 심리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청자는 농담이 지닌 리비도 방출의 효과를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지 비용이나 억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경향적 농담이 갖는 쾌락 효과의 비밀이다."[6] 이처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 생물학적 항상성의 원리

이 절약의 '제한경제'는 생물학적 항상성의 원리와 통합니다. 심리장치는 유기체 내부의 흥분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기 위해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회피의 기제를, 내적인 긴장의 증가에 대해서는 방어와 방출의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프로이트에게 심리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은 실로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다."(「쾌락원칙을 넘어서」, 84) 19세기 생물학의 최소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는 핵이 아니라 '막'에서 출현했습니다. 생물은 "자신이 만든 경계로 주변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물은 마치 스스로 질서를 더해 가는 기름방울처럼 등장했다."(『생명이란 무엇인가』, 92) 이 "막"에 의해 자연계의 에너지 흐름은 외부세계의 자극 에너지와 내부세계의 자기생산으로 분리됩니다. 세포는 이렇게 자연계의 연속적 에너지 흐름을 외부와 내부로 경계짓는 막에서 출현했고, 이 막은 세포막에서 시작하여 유기체의 개체적 경계에서 끝납니다. 19세기 생물학의 기본단위(주체)는 이렇게 외부환경과 분리되어 자기생산의 경계를 갖는 '개체'입니다. 이 생물학적 개체를 심리학에 적용한 것이 '자아'이며, 이 자아가 리비도 경제학에서 에너지의 투자와 분배와 소비를 통괄하는 주체입니다.

▲ 기계적 흐름을 생산하는 이드

이에 반해 '이드'는 생물학적 자아본능도 경제학적 투자원칙도 모른 채 오직 기계적 흐름을 생산할 뿐입니다. 자아의 통합원리와 달리 이드의 기계적 원리는 근본적으로 분열적입니다.

---

6)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인주 역,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1997, 159쪽.

www.artnstudy.com

“인간의 심층에는 이드가 있다. 그것은 분열증적 세포, 분열분자들, 그것들의 연쇄와 암호들이다.”(426) 프로이트는 처음부터 리비도의 기계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이고 비생명적이며 불합리한 원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드의 기계적 원리를 생물학적 원리에 포섭시켜 버렸고, 그 불합리한 생산의 원리를 소상품 생산자의 제한경제(절약economy)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리비도의 기계적 운동(반복강박)은 유기체가 무기질로 되돌아가려는 보수적인 ‘열반원칙’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끊임없는 잉여와 낭비를 생산하는 이드의 일반경제는 희소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소상품 생산자자의 제한경제로 왜소해지고 말았습니다.

※ 참고자료

프로이트가 발견한 욕망 - 리비도

프로이트는 자아에 의해서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적이고 비인칭적 사물 즉, 이드처럼 존재하는 욕망을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오직 리비도라고 하는 양적 에너지에 따른 욕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처음에 양적인 것으로 규정했지만 나중에는 리비도가 질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리비도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변덕스런 유동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은 리비도의 기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기질 때문에 정신분석이 장벽에 부딪힌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리비도가 양적이기만 하면, 그래서 경제적인 원칙만 따른다면 자아로 하여금 적절한 투자원칙을 갖게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 관점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적인 것으로까지 가면 정신분석학은 할 일이 없습니다. 리비도가 너무 끈적거려 어떤 대상에 너무 오래 들러붙어 있어서 혹은 반대로 변덕스러워서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옮겨 다니면 분석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이란 언어로 이루어진 그물을 환자의 리비도의 바다에 던져서 문제가 되는 무의식 속의 대상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요동치는 바다는 해석의 그물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이드로부터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적인 욕망은 단지 양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질적이기도 한 욕망입니다.

양적인 것뿐 아니라 질적인 것에 의해 무의식적 욕망은 생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www.artnstudy.com